

목어

수장(樹葬)

명산이란 곳을 오르다보면 한적한 길가에 뿌려진 흰 가루에 개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누군가 또 산골(散骨)을 한 모양'이라고 아는 스님들이 귀뜸 해 주신다. 사신의 유회(遺灰)를 자연 속에 뿌린다면 이렇듯이 명당을 찾겠다는 자손들이 많든지 옛부터 명당으로 널리 알려진 산사 부근에 그래서 요즘 '플래 산골'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요즘 중국에는 수장(樹葬)을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반경제적인 화장이 권장되고 있는데 그래도 매장(埋藏)을 원하는 사람은 수장을 택한다. 수장이란, 사람을 매장한 위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다. 아마 그 나무는 매장된 사신의 영안봉으로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나무로 환생한다고 할까. 이같은 방법은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만점이다.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지방에는 '공동 안식림'까지 생겨 매장에서 오는 부작용들을 일거에 해결하고 있다.

사신의 인골이 좋은 비료가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유회에 개미가 모이는 것도 그러려니와 19세기 크리미아 전쟁에서 러시아는 3만8천명의 자국 전사자 인골을 농작물 비료로 팔아 전쟁손실에 충당했다지 않는가.

이전부터 화장에 거부감 없는 일본에서는 이제 묘지 만들지 않고 자연에 뼈가루 뿌리는 자연장이 유행이다. 그들은 어느 한 나무에 유회를 뿌리고 그 나무를 어머니나 아버지 나무, 또는 누구의 나무 등으로 명명한다. 사신과 나무의 관계설정은 중국의 수장과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방법은 다르다.

세계적으로 장례의식은 이제 혁명적 변화기에 접어들어 느낌인데 바로 이웃한 극동아시아 3개국의 변화양상은 나라에 따라 이리 다르다.

한국도 몇 년 안에 납골당 중심 장례가 자리 잡을 것이고 보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영도라든가 납골당 등이 보다 자연 친화적 모습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미학적 연구 같은 것이 필요 할 것 같다...

김정자(자연론인·본지 논설위원)

교계-환경단체 5년반대 '결실'

가야산 관동도로 백지화 '의미'

"해인성지 생태계 파괴 막았다"

불교환경운동 정책 대안 제시

가야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국가 지원지방도 59호선 건설계획이 5년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백지화 된 것은 지난해 1월 해인골프장, 올해 3월 지리산담 백지화에 이은 불교환경운동의 또한번의 쾌거이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뤄지는 난개발의 전행이자 해인골프장 건설보다 더 큰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뻔한 대형 공사였다. 점에서 가야산 관동도로 건설의 백지화는 사찰환경분쟁 가운데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도로는 민족의 성지인 해인총림의 수행도량을 훼손할 것이 우려되었다는 점에서 도량수호의 성공사례가 될 전망이다.

해인골프장과 지리산담 문제 등

대규모 사찰환경분쟁으로 성숙된 불교환경운동의 역량이 대사회적으로 빛을 발한 이번 59호선 도로 백지화의 성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지난 5월 23일 도출된 해인사와 지역주민들간의 '노선변경 합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가야산국립공원 관동도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해인사와 주민들이 노선변경에 합의함으로써 여론에 민감한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조계종과 해인사가 지역 환경단체(대구·마창·진주·사천·양산환경운동연합)와 함께 가야산 관동도로 기자회견과 및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제출, 반대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가야산국립공원 관동도로 결사반대 시위로 참가한 불교환경운동가들

◇지난 4월 25일 가야산 환경위원회 출범 발족식인 해인사스님들은 경내에 59호선 도로반대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인 연대활동을 통해 자연환경과 수행·문화환경을 지켜낸 것은 불교계의 환경운동이 지역민과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웠다. 즉 10여년간의 일련된 불교환경운동이 이제 사찰환경 훼손에 대한 소극적 대응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속에서 능동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최종 결정단계에 앞서 노선 지정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사전에 잘못된 도로

공사를 집요하게 차단,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변경 노선을 제안한 것은 불교환경운동이 이제 사후약방문이 아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성을 띠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가야산 환경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계기로 불교환경단체들은 오는 9월경 범불교환경단체를 창립해 대사회적인 위상과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불교생명운동의 또 한번의 비약이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Event Description. Includes dates from 1989 to 2001 and various Buddhist events and protests.

이제는 복지불사

- 1. 교구 분사 앞장선다
2. 지역복지 성공사례
3. '1교구 1법인' 만들자

현재 조계종 불교사회복지지원센터에 집계된 불교계 운영 사회복지시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 80여개를 포함, 모두 35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시설들을 직·간접적으로 운영 또는 지원하면서 사회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찰은 조계종 교구본사 18개 사찰을 포함한 200여개에 파악되고 있다.

이중 부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통도사(통도사자비원) 신홍사(신홍사복지원) 동화사(불교사회복지회) 금산사(금산사복지원) 관음사(불교자비원) 마곡사(사사회복지법인 백상) 송광사(송광사마을) 범어사(사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등 8개 본사와 주요 사찰들은 대부분 사회 복지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찰예산 10% 사회복지비로

각 교구 본·말사의 이같은 활발한 복지사업은 결과적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단일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국내 최대인 90여개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국내 최대규모의 복지법인인 한국복지재단이 20여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다. 앞으로도 불교사회복지사업은 '1교구 1법인, 1사찰 1시설'이란 구호아래 교구본사와 지역 사찰에 의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외형-내실 동반 성장

그러나 이같은 복지불사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불교사회복지원' 설립을 포함한 (가칭) '불교사회복지법' 제정과 함께 교구본사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수영 국립보건원 교수는 이를 위해 '1사찰 1복지시설' 설립운동 추진, 종단 자원봉사센터 설립, 사찰 납골당 건립 지원, 사회복지상담 및 정보자료실 운영, 불교복지후원회 조직 및 모금

법인설립 조직·인력·모금 등 추진

생협·장례·교화사업 등 영역 확대

사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종단의 정책으로서 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인력·조직·전문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하면 사찰의 지역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복지 재원의 제도적 확보 = 사회복지 참여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종단 및 사찰의 자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교 장로교회는 사회봉사 주일헌금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특별헌금을 각 교회별로 제도화하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사회복지 주일헌금, 자선주일, 사순절 2차 헌금 등을 사회복지 관련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찰에서도 사회복지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예산 규모의

10% 사회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종단-교구-사찰의 유기적 협력체제 = 각 종단간, 종단과 교구 및 사찰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선진 복지프로그램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이웃 종단이나 교단 등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도 있다.

복지 중요성 지속 교육

- 지역사회에 맞는 개방적 접근 = 사찰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참여 시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개방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욕구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 복지단체들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전문성 제고 = 사찰의 주지스님

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사찰 부설 복지조직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적 접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복지 마인드 확충 = 신도들은 사찰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서, 후원과 자원봉사는 물론 사회 복지활동에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도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불교적 프로그램 개발 = 사찰직영의 복지시설에서는 불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직·노숙자를 위한 귀농학교와 신도들을 위한 생활협동조합, 불교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장례복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장의복지회를 들 수 있다. 이밖에 노인교실, 한글교실 등과 신도조직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 상담사업(노인, 청소년, 여성상담, 법률, 소비자상담 등), 일시보호소(가출여성, 미혼모, 청소년 등), 무료급식, 문화공간 제공, 결연사업 등은 전통적인 사찰기능에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비행청소년, 범죄인 교도소, 소년원출소자들을 위한 포교 및 교화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수행자들의 발로참회와 거듭남을 위한 21일 단식 기도정진을 시작하며...

1. 실상사 대중의 심정과 바람

우리 모두는 한국 불교를 산산히 부서져 내리게 했던 98년 종단 폭력사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해인사 선인 스님들의 폭력행위를 목도하는 순간 종단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98년의 충격이 되살아나고, 그 치절한 절망감으로 심장이 굳어왔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종단사태 때의 당혹, 허탈, 분노, 수치, 좌절의 아픔이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종단의 뿌리 깊은 업보인 폭력성은 우리 각자의 가슴에도, 총림에도, 선원에도, 강원에도, 본사에도, 말사에도 언제든 분출하고야 말 화산으로 살아있습니다. 함으로 두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비장한 결의와 다짐과 대역이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을 지켜 본 실상사 사부대중들은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고 돌아와 장시간 논의 끝에 의견을 모아 몇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금번 사건은 대화와 토론보다는 원시적인 물리력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단의 고질적 병폐의 한 현상이며, 전 종도가 반드시 극복되기를 염원하는 뿌리 깊은 조계종단의 업보입니다.

둘째, 몇몇 특정인을 문제삼기보다는 종단의 고질적 병폐인 종단의 업보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셋째, 한국불교의 한줄기 희망의 싹을 위해 앞으로 민족, 국가, 종단, 문중, 본사 등 어떤 명분으로도 불교 집안에 폭력이 발 불일 수 없도록 하는 범불교, 범종단적 대책을 확립해 가야 할 일입니다.

넷째, 전 종도의 바람인 종단의 고질적 병폐 근절을 위해 종단, 해인사의 위상과 이미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중 합의에 의해 정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합리적 대화로 병폐근절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결 하고자 했지만 한결같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실상사 대중은 처음 뜻한 바 대로 해인사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음과 동시에 지금의 상황을

첫째는, 각자의 가슴에 숨어있는 불신, 분노, 증오 따위의 폭력성을 뿌리 뽑는 자기변화와 성장을 위한 수행의 계기로 삼고

둘째는, 실상사 대중들의 가슴에 깔려있는 불신과 갈등의 벽을 철어버내 신의와 자애가 흘러 넘치는 도량이 되도록 하는 성숙의 인연으로 승화시키며

셋째는, 종단의 고질적 병폐를 극복하고 인내와 자애와 평화의 기운이 흐르는 종단으로 거듭나게 하는 불씨가 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진실한 발로 참회, 지극한 단식, 기도정진, 우리의 심정과 뜻을 담은 호소, 청원,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겸허한 발로참회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은 해결되나 이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 모두는 중증두진 연기의 일심동체적 존재다. 마땅히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고 중생의 허물을 대신 참회해야 한다."

부처님은 모든 문제를 자기 허물로 알고 참고 견디며, 참회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해인사 대중에게 분노와 증오와 원망심으로 대항한 실상사 대중들의 태도는 불교적으로 옳지 않으며, 수행자답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발로 참회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법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지 못한 허물을 불조와 종단의 모든 어른 스님들께 여드려 발로 참회합니다.

둘째, 수행자로서의 모범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인 허물을 후배와 제자대중과 국민대중께 진술한 마음으로 발로 참회합니다.

셋째, 부처님 가르침대로 모든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삼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와 원망심으로 번거로움과 괴로움을 끼쳐드린 허물을 해인총림 대중들께 진심으로 발로 참회합니다.

오래 이후로는 저희들 가슴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폭력의 씨앗인 분노, 증오 따위가 발 불이져 못하도록 결연하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겠습니다.

3. 거듭 태어남을 위한 단식기도

"인욕으로 분노를 이기고 착함으로 사악함을 이기며, 베행으로 인색함을 이기고 정성으로 거짓을 이기라."

출가 수행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굴피고도 업장이 지중하고 신심의 나약함 때문에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심신과 인력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한바탕 열정을 내어 단식기도를 하더라도 당장 무엇이 달라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회 단식을 하는 것은 천수경의 가르침처럼 작은 불씨가 나무싹을 태우듯이 부처님 법대로 하려는 몸부림 자체가 중생업을 태워 소멸시키는 불씨가 되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현재 실상사 대중들의 단식기도는 우리를 가슴에 부처님 범의 작은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사무치는 몸짓입니다.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분노와 증오와 복수 따위의 중생업을 태워 버리고 나무과 인내와 자애와 화해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고자 하는 지극한 오해투지입니다.

함으로 절망이 발원합니다. 오늘 실상사 대중들에게 의해 지퍼된 작은 불씨가 실상사 대중의 가슴을 질어, 승가 대중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을 넘어, 사부대중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으로 번져가도록 많은 분들의 수회 동참 수회찬원이 있길 빌고 또 빌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신의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는 분노와 증오와 폭력성을 몰아내고 가슴 가슴마다에 인내와 자애와 용화의 장엄한 불꽃이 피어올라 세상을 환하게 밝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끝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감히 용기를 낸 실상사 대중들에게 뜻한바가 원만히 희망 될 수 있도록 중징에하를 위시로 종단의 어른스님, 중진스님, 도반 그리고 사부대중 모두가 맑고 따뜻한 힘을 보내주시길 두손 모아 청원드립니다.

불기 2545년 7월 5일